



2021년 8월 15일(제1048호) **성모 승천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본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성모 승천 대축일”

오늘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보냅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오를 승(昇)’자에 ‘하늘 천(天)’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라틴어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Ascensio Domini’(아스첸시오 도미니)라 하는 반면에 성모님의 승천은 ‘Assumptio Mariae’(아슈프시오 마리에)를 쓰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Ascensio(아스첸시오)는 ‘~을 향하다’는 의미의 ad와 ‘오르다’는 의미의 scando가 합쳐진 ascendo(아스켄도)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오르심, 곧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와 달리 성모님의 승천은 Assumptio(아슈프시오)인데, 이는 ‘수여받다, 채용하다, 채택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동사 assumo(아수모)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성모님께서 하늘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요? 구약성경 안에서 에녹과 엘리야 두 인물은 생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창세 5,24; 집회 44,16; 히브 11,5)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갔다고 합니다.(2열왕 2,1-11; 1마카 2,58)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두 인물의 삶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두 인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히브리어 ‘laqah’(라카)인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공동체 안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지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영위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한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왔던 이들의 열성적인 삶은 하느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간 이들을 이제, 직접 당신의 품에 받아들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고백도 그러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온 생애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천사의 말씀에 응답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을 당신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양육하시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십니다.(루카 1,29)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공생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묵묵히 함께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환평생 예수님의 일생과 함께한 성모님의 삶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 성모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여 하느님과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성모님을 따라 우리도 모든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참된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어디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태(미티아) 신부
명월(15시스트)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묵시 11,19ㄱ; 12,1-6ㄱㄴ.10ㄱㄴㄷ
- 회 답 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제 2 특 시** 1코린 15,20-27ㄱ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복 음** 루카 1,39-56
- 영 성 재 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이홉 번째 시한

이 부족이 사는 남쪽, 바다 쪽으로 ‘다체수’(Ta-tche-sou)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아주 많은 중국인과 조선인 방랑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독립 정신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피해서, 또는 빗쟁이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리로 모여들었고, 지금도 매일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범죄에 익숙된 그들에게는 도덕도 원리 원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무질서를 억압하고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두목을 하나 선택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장 일치로 살인자는 누구나 생매장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그 법을 그들의 두목에게까지도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없으므로 여자를 만나면 어디서나 여자를 납치해 갑니다. 고대 로마의 초기와 좀 비슷한 이 작은 나라가 로마와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조선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인 산림 속에 태백산(太白山) 또는 큰 백두산(白頭山)이 구름 높이 솟아 있는데, 이 산은 지금 왕위에 있는 왕가의 시조인 ‘한왕’(Han Wang, 汗王)의 출생지로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산의 서쪽 비탈에 그의 옛 집이 보수한 덕택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종교 예식의 중국 미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의 먼지 속에 이마를 조아리기 위해 경건한 순례자가 아주 먼데서부터 옵니다. 한왕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처음에 도둑의 두목으로서 주위의 지방들을 착취하였는데 도당의 수가 많아지자 왕권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즉 한왕)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처음에 달단에 많이 존재하던 작은 왕국의 하나였으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기원이야 어쨌든 그는 벌써 명조 말엽에, 명조의 마지막 황제의 하나인 중국의 만력(萬曆) 황제가 크게 두려워할 만큼 세력이 강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력 황제는 한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의 나라들을 위협하는 몽고인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한왕에게 그의 군인 중에서 정병(精兵)을 보내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어머니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나약한 의지를.
그 가련한 처지를.

잘 챙겨 안고
기도하는 이.

나의 어머니.

하나하나

어머니.

상화이야기

성모지와 천사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의 옥좌에서 구름과 천사들에 둘러싸인 성모님을 그린 이 그림은, 하늘의 여왕님으로서의 성모님을 그리고 있다. 성모자를 둘러싼 천사들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흠송하고 있으며, 전면의 천사들은 성모자에게 분향을 올리고 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두 팔을 들어 올려 축복하시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며, 성모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한 표정이다.

성모님의 별 12개로 이루어진 관은 요한 묵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에 따른 것이다.

부계로, 1900년 작
185x285cm
쁘띠 필레 미술관, 프랑스 파리

김은혜(캘리시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상비인대 최민성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니

-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